

9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man and a woman walking through a landscape. The woman on the left wears a pink jacket over a yellow top and a long white skirt. The man on the right wears a white long-sleeved shirt, white pants, a blue cap, and a brown satchel. They are walking towards the right.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green tree with a brown trunk, a smaller green tree with blue leaves, and a brown deer. There are several small white houses with black roofs and a blue fish. The ground is a mix of green grass and brown earth. The sky is a solid light blue.

1. 그린시티 대구의 어제와 오늘
2. 대구에는 사람 곁에 자연이 산다!
3. 푸른 동해의 보물, 울릉도와 독도

1

그린시티 대구의 어제와 오늘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 분지의 형성 과정과 대구의 여름 기온이 높은 이유를 알아보자. 또 대구가 이런 환경을 푸른 대구가꾸기운동을 통해서 극복해 낸 과정도 살펴보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 시가지

지금의 대구 분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대구는 남쪽과 북쪽이 높은 산지로, 서쪽과 동쪽은 150m 내외의 구릉지로 둘러싸인 도시다. 분지 도시인 것이다. 분지 지형은 대구의 기온에 영향을 주었는데, 여름 더위도 그 영향 중 하나다. 그렇다면 대구 분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후 지질시대는 시생대·원생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순서로 흘러왔다. 약 1억 년 전은 중생대의 한 시기인 백악기로, 대구에 공룡이 살았던 시대다.

이때도 대구가 속한 경상도 땅은 저지대였다. 이곳을 흐르던 물줄기는 잘게 부서진 암석들과 함께 호수로 흘러 들어갔다. 작은 암석들이 호수 아래에 쌓이고 굳어지며 퇴적암이 되었다.

이후 대구에선 몇 번의 화산활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화산암 지질인 대구 북부, 남부의 산지 지형이 형성되었고, 한편으로 퇴적암 지역은 하천에 의한 지속적인 침식작용으로 평평한 땅이 되었다. 이로써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가 형성되었다.

대구 분지는 금호강 지류인 신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평지이다. 이 평지의 서부와 동부에는 낮은 구릉지가 넓게 분포했는데, 시간이 흘러 대구의 인구가 늘고 시가지가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밭으로 이용되던 많은 구릉지가 주택가로 변화했다.



한여름의 대구 시가지

여름이 더운 대구 도대체 왜 그럴까?

예로부터 대구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 산지로 둘러싸여 외적 방위에 유리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태풍, 홍수 피해가 덜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흘러 농사짓기 좋았고 교통도 편리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한반도는 어디나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춥지만, 대구는 유난히 여름이 더운 도시였다.

대구가 여름에 더운 것은 지형의 영향이 가장 크다. 대구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역에서는 여름에 더운 공기가 산에 막혀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또,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열섬현상도 대구의 더위를 심화하는 데 한몫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때가 많았다. 1942년 8월 1일에는 무려 40℃를 기록한 적도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변화가 나타났다. 여름 더위를 재는 척도 중 하나인 열대야 일수가 정체·감소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일 최고 기온에서도 2010년대 후반부터 다른 도시들이 대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여름이 가장 무더운 도시'에서는 벗어나는 추세다.





대구 도심 경상감영공원 숲

가로수가 많기로 유명한
푸른 도시 대구!



도시 숲의 놀라운 효과

‘도시 숲’은 도시 지역에서 보
건, 휴양,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조성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
한다. 공원, 학교 숲, 산림 공
원, 가로수가 여기에 속한다.
도시 숲은 여름철에 숲 근처
공간의 기온을 낮춰 주는 역
할을 한다. 자동차의 경적 같
은 도시 소음을 줄여 주는 것
은 물론,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대기 정
화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요
즘 들어 특히 심각해진 황사나
미세먼지 문제에도 좋은 해결
책이 된다.

“대구가 너무 덥다 보니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래도 덜 덥지 않을까요?”

1980년대 초, 대구시청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그때부터 대구에서는 나무심기 운동과 녹지 공간 확대 작업이 시작되었고, 1996년부터는 ‘푸른 대구 가꾸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을 시작할 당시 대구시는 이런 비전을 세웠다. “대구를 세계적인 숲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

숲의 도시 만들기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대구시는 1차 사업 기간이던 2006년까지 1,0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07년부터 5년간 진행한 2차 사업에서는 1,208만 그루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였던 3차 사업에서는 1,164만 그루를 심었다.

20년이 넘는 동안 가로수를 심고, 공원 등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고,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로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된 것이다. 2019년 대구시의 녹피율(녹지 면적/전체 면적)은 한국의 특별시·광역시 평균인 51%를 초과한 62.4% 수준까지 올랐다. 2019년 말 통계에 의하면 대구시에는 800여 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6.64㎡나 된다

이렇게 하여 ‘대프리카 대구’는 ‘그린시티 대구’로 변화하였다. 많은 나무와 숲이 있는 덕분에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졌다. 여름철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편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아울러 초록빛 돌아나는 봄부터 울긋불긋 단풍 물드는 가을까지 아름다운 가로수의 도시로 유명해졌다.

2

대구에는 사람 곁에 자연이 산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린시티 대구를 잘 보여 주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름다운 가로수길부터 공원, 산길, 강과 습지 등 그린시티 대구를 만들어 주는 환경은 꽤 다양하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가로수길

울창하고 아름다운
대구의 가로수길

나무가 많은 도시이기에 대구에는 아름다운 가로수길도 많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길들인데, 그중 몇몇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대구 도심에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가로수길이 특히 아름답다. 공평네거리에서 시작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따라 인도 양옆으로 아름드리 참나무가 줄지어 있고, 경대병원 앞에서 삼덕네거리까지 이어지는 플라타너스길도 아름답다.

수성구 상동길도 좋다. 수성구 대우트럼프월드에서 상동교로 이어지는 1.5km가량의 길로, 양쪽 인도를 따라 촘촘히 서 있는 플라타너스나무 사잇길로 걸으면 녹색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달서구 월곡로에서 달서소방서까지 이어지는 약 900m의 길도 인도를 따라 짙은 짙은 메타세콰이어가 장관이다. 대구시 동구에 있는 봉무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도 메타세콰이어로 유명하다.

그늘이 짙은 거리는 아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가로수길에는 동대구로가 있다.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범어네거리까지의 2.7km 구간은 히말라야시다가 높이 뻗어 있는 시원한 길이다.

이 외에도 대구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있다.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런 멋진 길들이 보일 것이다!



다른 도시 사람들이 대구에 오면 놀라는 것이 있다. 땅값이 비싼 도시 중심부에 공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대구의 자랑거리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도시 한복판에 42,509㎡의 큰 공원이 있는 건 흔치 않다. 대왕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같은 교목과 철쭉 같은 관목을 합해서 4만 2000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도심공원이자,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학교, 관공서 등이 있던 자리였다. 이들 기관이 떠나고 처음에는 '값 비싼 땅을 팔아 다른 용도로 쓰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본 이들의 결심으로 공원을 만들자는 최종 의견이 모아졌고, 공원 건설 때는 어느 문중에서 공원에 심을 큰 소나무를 기증하는 미담도 있었다.

달성공원

달성공원은 오랜 시간 대구의 도시 숲 역할을 해준 고마운 곳이다. 이곳에는 역사를 간직한 서참나무를 비롯해 소나무와 회화나무, 왕벚나무, 개나리, 담쟁이덩굴 등 6만 70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자랑한다.

2·28기념중앙공원

대구 최고의 변화가인 동성로 가까이, 예전에 초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선 공원으로 소나무, 느티나무, 회양목 등 1만 90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공원 건설



83타워가 있는 두류공원

당시 주변에 건물들이 많았는데,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공원 이름에 담긴 2·28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경상감영공원

조선시대에는 경상감영이, 1910년부터 1965년까지 경상북도 청사가 있었던 곳에 메타세콰이어, 가죽나무, 영산홍 등 1만 26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사업이 서구청 다음으로 추진된 곳이다.

두류공원

숲이 울창한 두류공원은 1977년부터 개발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두류산과 금봉산 두 개의 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며, 이월드 83타워가 들어선 곳이 두류산, 문화예술회관 뒷산이 금봉산이다.



대구 지식플러스

생태 복원으로 탄생한 대구수목원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수목원은 244,630㎡ 규모로, 그린시티 대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2002년 문을 연 이곳은 전국 최초로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대구수목원은 침엽수원, 활엽수원, 화목원, 야생초화원, 약용식물원, 염료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00여 종 6만 그루의 나무와 1300여 종 27만 포기 of 초화류가 자란다. 도심에서 가까운 도시형 수목원으로 체험학습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



팔공산 단풍길

산 따라~ 들 따라~
대구의 아름다운 길



금호강이 선물해 준
휴식 공간
동촌유원지

대구시 동구 효목동 금호강변에 있는 동촌유원지는 1918년 처음 유원지가 조성된 이래 오랜 시간 대구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된 곳이다. 강변의 남쪽엔 절벽이 우뚝 솟아 금호강과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 또 소나무, 포플러나무, 아까시나무, 참나무가 강변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곳이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도 시원하게 뻗어 있다.

대구에는 산, 들, 강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길이 많다.

‘대구 둘레길’은 산과 들, 강을 따라 걸으며 대구의 숨겨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길로 138.6km 길이에 16개 구간이 구성되어 있다. 반야월 연근(꽃)단지가 있는 안심 지역, 금호강 풍경이 아름다운 무태 지역, 낙동강 풍경이 시원한 강창 지역, 비슬산에서 가까운 우록마을이 포함되어 있다.

‘팔공산 둘레길’은 팔공산의 둘레를 따라 출발점에서 시작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조성한 숲길이며, 총 16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팔공산 왕건길’은 팔공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왕건의 역사를 배우고 팔공산 경치도 즐길 수 있는 길이다. 지묘동 신승점 장군 사당에서 동내동 동곡지까지, 35km의 거리에 8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왕건전망대와 초례봉에서는 탁 트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앞산 자락길’은 용두골 장암사에서 달비골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앞산순환도로에서 산 쪽으로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편안히 걷도록 조성된 길이다. 총 14km 길이에 산책로와 오솔길이 이어진다.

강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길도 있다. 그중 하나가 대구시 북구 금호강에 있는 작은 섬인 하중도를 따라 쭉 이어진 산책로다. 길과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서 풍경 사진을 찍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안심습지

대구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신천 & 자연 습지



그린시티 대구는 신천과 금호강이 있어 더욱 아름답다. 신천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와 꽃이 강물과 멋진 조화를 이루는 도시하천이다. 하지만 신천의 자연환경이 늘 깨끗했던 것은 아니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1960~1970년대에 신천은 상류에서 흘러온 공장 폐수 등으로 수질이 나쁜 시절도 있었다.

요즘처럼 맑은 하천이 된 것은 1996년 하류의 신천하수처리장 등 첨단 시설을 운영하며 꾸준히 수질 관리를 한 덕분이다. 또 신천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이 드러나는 하천인데, 하류에서 정수한 물을 다시 상류로 보내 흐르게 함으로써 늘 물이 흐르는 도시하천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금호강에 있는 자연 습지도 그린시티 대구를 아름답게 해주는 곳이다. 대구의 자연 습지에는 달성습지와 안심습지가 있다. 달성군 다사읍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달성습지는 총면적 2km²에 달하는 공간으로, 황조롱이 등의 조류와 노루, 고라니 같은 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간다.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2종으로 지정된 맹꽂이 역시 달성습지의 가족이다. 근처 화원읍의 달성습지생태학습관에 가면 이 습지에 대한 체험학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자연 습지인 안심습지는 대구시 동구 금강동 일대 1.6km² 규모의 늪으로, 연꽃, 갈대, 애기부들 등 각종 습지식물과 쇠물닭, 덩불해오라기 등의 새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그린시티 대구 100% 느끼기

나무와 숲의 고마움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대구수목원이 있다.
또 신천에 가면 강과 식물, 동물을 만나며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의 기후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럴 때에도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있다.



대구수목원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수목원은 꽃, 나무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체험학습 장소이다. 수목원을 방문하면 산책하며 희귀 식물부터 약용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을 구경할 수 있다. 또 수목원 안에 있는 산림문화전시관에서는 더 깊이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공원으로 빌딩 가득한 도심에서 꽃, 나무, 새소리를 친구 삼아 산책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공원 이름은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기념하여 정한 것이다. 달구벌대종이 있는 마당에서는 매년 신년맞이 타종 행사가 열린다. 다양한 식물 외에 볼 것도 많고, 산책하며 위인들이 남긴 명언을 읽을 수 있는 '명언 순례의 오솔길'도 있다.



대구지방기상청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으며, 시민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기상청 소개 동영상 시청, 일기도 그리기, 관측 장비 견학, 기상캐스터 체험 코너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상청 홈페이지만 잘 활용해도 기후 관련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신천 이야기 하나, 수달을 발견하라

신천에서 처음 수달이 발견된 것은 2005년이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대구의 하천에서 발견된 수달의 수가 총 24마리에 이르렀다(신천 8, 금호강 7, 동화천 7, 팔거천 2). 연구자들은 수달이 많이 발견되는 곳으로 팔달교-조야교 구간, 대구시 동구의 안심습지, 금호강-신천 합류부 3곳을 꼽았다. 이 연구대로라면 신천에서 수달을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천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이다.

신천 이야기 둘,

신천둔치는 꽃과 나무의 천국

신천의 다리 중 하나인 대봉교 근처에 둔치공원이 있다. 물과 조화를 이룬 다양한 꽃과 나무를 관찰하기 좋은 곳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 따라 많은 나무가 꽃을 피운다. 봄소식을 전하는 홍매화부터 살구나무꽃, 산수유꽃, 개나리, 박태기꽃, 자두나무꽃, 명자나무꽃, 벚꽃, 영산홍, 이팝나무꽃, 찔레꽃, 능소화, 무궁화 등을 볼 수 있다. 공원 둔치에서 보이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신천을 지나가는 모습도 멋진 장면으로 꼽힌다.

아래는 한국의 역대 지역별 최고 기온과
2019~2020년 두 해 동안의 지역별 최고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를 '대프리카'로 부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역대 지역별 최고 기온

순위	지점명	연도	최고기온(°C)
1	홍천	2018	41
2	춘천	2018	40.6
3	의성	2018	40.4
4	양평	2018	40.1
5	충주	2018	40
6	대구	1942	40
-	-	-	-
13	서울	2018	39.6
14	영천	2016	39.6

2019~2020년간의 지역별 최고 기온

순위	지점명	연도	최고기온(°C)
1	양산	2020	37.8
2	의성	2019	37.6
3	경주	2019	37.5
4	이천	2019	37.3
5	영천	2019	37.2
6	홍천	2019	37.1
7	대구	2020	37
-	-	-	-
13	대구	2019	36.9
-	-	-	-
16	서울	2019	36.8

예전에 지리를 배운 사람들은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낮았던 1942년에 대구는 압도적으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2000년 전까지 대구가 최고 기온을 기록한 적이 많았죠. 그렇지만 2000년 이후만 한정해 보면 2018년 23위가 최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프리카'라는 말이 생겨난 시점에는 정작 대구의 기온이 최고를 기록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울과 최고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았습니다.

대구에서 살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역이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에 덧씌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위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고, 겨울에는 서울보다 따뜻합니다. 오히려 공원과 가로수가 많아서 도심의 거리를 걸을 때나 공원에 앉아 쉴 때 여유를 느낄 수가 있죠. 대구가 아프리카 같다는 것은 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처럼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MEMO



3

푸른 동해의 보물, 울릉도와 독도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경상북도에 속한 섬인 울릉도와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섬이다. 두 섬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알아보자.



울릉도 투막집

울릉도의 역사와 자연

3무 5다의 섬

예로부터 울릉도를 '3무 5다의 섬'이라고 했다. 3개가 없고(無) 5개가 많다(多)는 뜻이다. 없는 것은 도둑, 공해, 뱀이고 많은 건 물, 미인, 돌, 바람, 향나무이다. 결국 '3무 5다'는 살기 좋고 깨끗한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다. 울릉도에 돌이 많은 것은 신생대 제3기에서 4기에 걸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조면암 및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우산국이 있었던 섬

울릉도에는 고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에 관한 첫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512년 하슬라 지방(오늘날 강원도 강릉 지방)을 다스리던 신라 장수 이사부는 동해에 있는 우산국(울릉도의 옛 이름)을 신라 땅으로 만드는 일을 계획했다. 그는 육지를 떠나기 전 나무로 사나운 얼굴의 맹수 조각을 만들어 우산국으로 접근했다. 이어 우산국 근처에 도착한 이사부는 이곳 사람들에게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섬에 풀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한다. 이 말에 우산국 사람들은 항복을 했고, 이로써 우산국과 그 주변 지역(독도)은 신라의 영토로 들어오게 된다.

천연기념물이 무척 많은 섬

울릉도는 육지에선 보기 힘든 여러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진 섬이다. 울릉도의 천연기념물에는 향나무 자생지, 섬잣나무 군락지, 섬댕강나무 군락지, 울릉국화 군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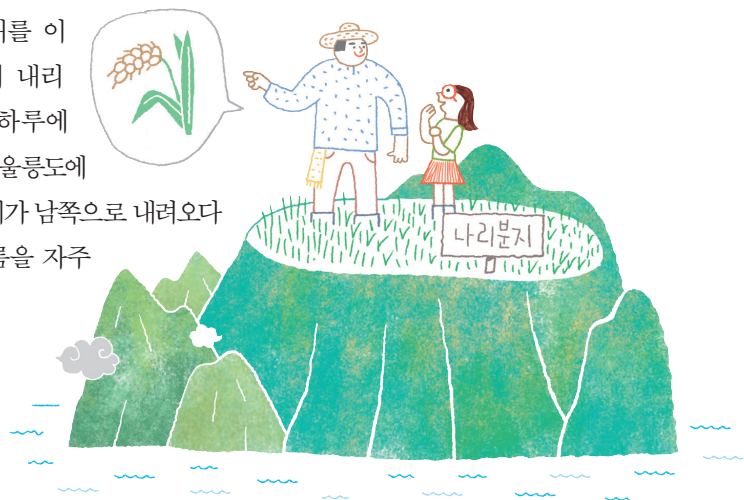
3무 5다의 섬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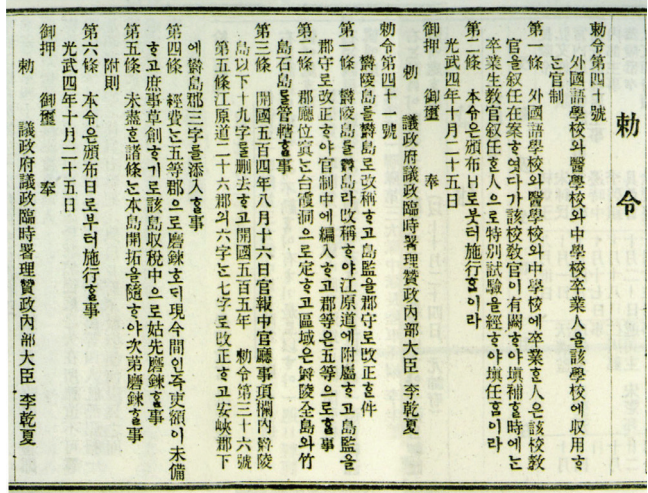
성인봉 원시림 등이 있다. 울릉도에 속한 독도의 천연보호구역은 현재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울릉군 사동리 해변에는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의 서식지가 있다. 이 외에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인 통나무로 벽을 짜맞춘 투막집과 소나무 널빤지로 지붕을 이은 너와집은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이다.

성인봉과 나리분지가 있는 섬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은 높이가 987m나 된다. 성인봉의 해발 600m 위치에 있는 원시림은 섬파나무, 너도밤나무, 섬고로쇠나무 등의 희귀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리분지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최대 강설량을 기록했을 때는 하루에 151cm(1955년 1월 20일 기록)나 쌓이기도 했다. 울릉도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겨울에 차가운 북쪽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자주 만들기 때문이다.





울릉도 명칭에 대한 개정을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민국의 섬! 독도의 역사

신라 장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섬이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독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에 속하게 된 것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부터로 알려졌다. 당시 하슬라 지방의 군주였던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부터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 존재해 온 것이다.

왕건에게 방물을 바친 우산국 사람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재위 13년째 되던 930년, 우산국 사람들은 왕건에게 방물(임금에게 바치던 지역 특산물)을 바쳤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고려 정부로부터 우산국 또는 우릉성으로 불리면서 고려의 동해안 외곽 방어선 역할을 수행했다. 육지와 지속적인 문물 교류가 계속되었고, 울릉도·독도 지역은 여전히 우리의 영토로 존재했다.

1882년, 주민들의 울릉도 이주를 허가하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독도 지역에 섬을 비우는 정책을 실시했다. 여진족과 왜구의 위협이 사라져 동해안 방어선으로서 울릉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사는 조선 어부들은 끊임없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며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를 했다. 1882년 조선 정부가 섬 거주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울릉도로 본격적인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독도

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칙령 제41호를 발표하였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명확하게 공표한 것이다.

1952년 해양주권 선언, 독도는 우리 땅

1945년 광복 후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우리에게 반환되었다.

1946년 1월 29일 일본 정부에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677호 3항에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 주변 12해리가 대한민국 영해임을 분명히 했다.



독도를 지킨 어부 안용복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통치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출몰하여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과 일본의 어부들이 종종 충돌했다. 1693년 안용복이 이끄는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과 충돌해 납치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안용복은 그런 처지에서도 일본의 지도자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당당히 주장했다. 결국 그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인증 문서를 받아 내기에 이른다. 안용복은 1696년에도 고기잡이를 하다 발견한 일본 어선을 마쓰시마섬까지 추격해 그 지방 지도자로부터 영토 침입에 대한 사과를 받고 귀국한 일이 있었다.